

창달기

작성자 : 청아

입력시각 : 15-04-17 10:42

제목 : “한인2세 SAT II 한국어 응시를 지원합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이하 NAKS, 회장 최미영)의 SAT II 한국어 전문위원들과 집행부가 달라스에 함께 모였다. 특별히, 낙스를 이끌고 있는 임원진이 달라스를 방문한 것은 NAKS를 DFW 지역에 알리고, 한인 2세들의 SAT II 한국어 시험 응시와 한인 2세들의 정체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는 NAKS의 최미영 회장과 김인숙 부회장 그리고 권예순 홍보 간사등 임원진이 대거 참가했으며, 방정웅 SAT-II 한국어전문위원장과 강주연, 최연미 전문위원들도 함께했다.

최미영 NAKS 회장은 동포학생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 역사를 강조하는 한국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SATII 한국어 시험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미국 내 대학의 입학에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SAT 점수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명문대의 경우는 SAT I, II를 다 요구하기 때문에 SAT II 외국어 시험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최 회장은 “SAT II 한국어 시험 응시율은 한국어 보급과 한인 1.5세의 정체성 고취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운을 뗐다. 그는 특히 “많은 경우, 한인 학생들이 한국어에 응시하는 것을 꺼려하는데, 이것은 일부 학원가에서 나온 잘못된 정보”라며 “현재 SAT II 외국어 시험 중 한국어는 스페인어와 중국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응시율을 보이고 있으며, 응시자들의 평균점도 매우 높다”고 한국어 응시를 독려했다.

NAKS는 매년 14개 지역협의회를 통해 SATII 한국어 시험을 위한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전미 지역에서 모의고사가 일제히 실시됐다.

올해도 정규학교 7학년 이상의 한국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 동포 자녀들 약 2,000명이 응시했으며, 듣기, 어법, 독해력 등 3분야에 걸쳐 1시간 동안 80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1997년 한국어가 외국어시험으로 채택된 이후 올해로 19년째 시행되고 있는 모의고사 시험은 응시자들에게 한국어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한편, NAKS에서는 SAT-II 한국어 문제집 편집 모임을 가졌고, 교재 출판을 준비 중이다.

켈리 윤 기자 press2@newskorea.com